

히피패션이 보보스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정은숙·김신우*

명지대학교 예체능대학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명지대학교 예체능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A Study on the Effect of a Hippie Fashion on the Bobos Fashion

Eun-Sook Chung · Shin-Woo Kim*

Dept. of Fashion Design, Myongji University

(2001. 10. 31 투고)

ABSTRACT

21th century is evolving from physical to brain-oriented society, and from class oriented society to network society. In the midst of it, bobos is the new enlightened elite group.

In depth analyzation of the beat generation from the 1950's and hippies from the 1960's, which had influenced the bobos, were done to study on such new and core elite group.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emerging of bobos was originated and created from the long gone conflict between the beat and bourgeois, and the hippie and the conservative.

And this mixed culture of both free-spirited hippie and materialistic yuppies from the 80's is rapidly growing, and they are easily seen from various commercial advertisements, accessories and fashion designs.

In addition, the bobo's were targeted by the main designers, and expressed through bohemian luxury and romantic hippie mood. Naive and childish floral prints, paisley prints that were influenced by the hippies, the hair styles from the 80's and washed denims were seen at the collections. However, the symbolism of the 60's defiant fashion styles seem to fade away but remains only as a style.

The comparison and analyzation between the fashion of bobos, hidden meaning of those defiant fashion styles and the aesthetics of it are arranged in the following conclusions.

Key words : Sub Culture(저항문화), Bourgeois(부르주아), Bobos(보보스), Bohemian(보헤미안)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의복은 건축, 음악, 회화와 같이 시대를 의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어떠한 시대에도 저마다 각기 특징적인 스타일이 있다.

또한 의복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서 의복을 통해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고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는지에 대한 외적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¹⁾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로 급속도로 빠른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디지털 세대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엘리트 보보스족은 문화적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체계를 갖춘 사회를 주도하는 새로운 기득권층이 되었다.

1960년대 저항 문화와 1980년대 성취가 합쳐진, 다시 말해 60년대의 보헤미안의 저항과 창조성, 80년대의 부르주아의 욕망과 성공을 내포한 보보스족의 가치관은 일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도덕, 레저 그리고 패션에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보스는 2001년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표적이 되어 패션 산업전반에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C 패션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수용되고 있는 보보스를 이해하여 패션과의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저항패션이 2000년대 보보스 패션에 미친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근래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보보스가 패션에 있어서의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패션에 있어서의 보보스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저항패션과 2000년대의 문화적 트렌드의 핵심인 보보스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하

여 실증적 연구 방법으로 L'Officiel(No.848-859), Men's collection S/S, F/W(2000,2001,2002), Collection S/S F/W(2000,2001,2002)와 12개의 인터넷 사이트의 총 사진 자료1820 cut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60년대 저항패션이 보보스 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그 연구를 토대로 보보스 패션의 내적 의미와 외적 형태를 분석하였다.

저항 패션은 히피와 비트로 한정하여 히피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2000년대의 상위 문화는 보보스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저항 패션의 내적 사상이 2000년대 보보스 패션으로 복고되면서 어떤 공통점과 다른 점을 갖게 되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용어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저항 문화(sub culture)'는 반문화라고도 하며 모문화에 대해 저항적으로 표현하는 문화를 말하며 모문화(mother culture)는 어느 시대에 지배적인 사상, 가치관, 규범, 관습, 행위, 예술품, 패션 등을 뜻한다.

'상위문화(high culture)'는 '어느 시대에 권력과 권위를 가진 지배층의 문화, 또는 지향되어야 할 문화'로 정의하였으며 '저항 패션(sub fashion)'은 모문화의 지배 문화에 대한 저항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복식이나 의모'로, '히피 스타일(hippie style)'은 60년대 히피들의 복식 및 그들을 모방한 복식 형태를 지칭함'으로 정의하였다.

가장 많이 인용된 보보스는 데이비드 브룩스가 정의한대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합성어로 정보화 시대의 '개화된 엘리트'로 정의하였다.²⁾

한세대를 풍미하는 용어들은 그 단어 자체로서 그 시대의 문화와 패션을 모두 포함한다. 1950년대의 비트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이었고 1960년대 히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였으며 그들의 패션 또한 철저히 자유로운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였다. 1980년대 여피는 알마니 정장과 불가리 시계로 대변되는데 그들의 패션은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신세대 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³⁾

1950년대 저항문화의 대표적인 비트와 1960년대 히피, 그리고 성취적인 80년대 여피의 가치를 절묘하게 융합시킨 보보스의 역사적 유래를 간략하게 고찰함으로써 보보스 패션의 내적 의미와 외적 형태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비트(beats)

먼저 비트는 중산층의 지식계층과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히피 문화의 근원으로 비트 제네레이션(Beat generation)이라 불린다. 이 문화는 마약사용, 이국종교, 정치적 급진주의, 평화주의,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회귀가 혼합된 문화였다⁴⁾

보헤미안적 생활양식과 동양의 신비주의에 몰입하면서 부르주아 사회를 거부하였던 이들은 스타일에 무관심하였던 집단으로 훗날 대중매체에 의해 검정색 의복에 수염을 기르고 베레모와 샌들을 즐겨 착용한 것으로 표현되었다.⁵⁾

비트라는 말이 '매질 당하다' '복을 받는다'라는 이중의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은 꽉짜여진 현대 사회에 견디지 못하고 방종한 생활과 행동으로 해방감을 얻으려 했다. 비트 운동은 미국사회에 대한 항의입과 동시에 그 사회로부터 탈출하려는 사회 운동이었다.⁶⁾⁷⁾

비트운동의 시작은 보헤미안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실존주의 유럽 철학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파리에서 출발하여 지성인 문인 철학자 그룹의 기본이 되었다. 특히 사르트르와 보브와르를 중심으로 보헤미안 하위문화로 자라난 실존적 지성 그룹이 중심이었다.⁸⁾

작가 버튼 올프는 "비트는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위대한 나라 미국에 대해, 수백만 달러 짜리 양복과 양장을 구입하기 위해 직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컬러 TV나 교외의 별장 또는 파리 여행 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비트족을 부르주아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들로

분석하였다.

또한 폴 굿먼(Paul Goodman)은 1960년대에 쓴 책 「부조리한 성장(Growing up Absurd)」에서 "비트족은 반체제적이고 풍요로운 같은 것을 거부했지만 사실은 잘 살았으며 즐거움을 추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비트족의 문화는 중산층이나 조직화된 시스템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며 공동체 구성하기, 성의 해방, 그리고 명성에 무관심하기 등 중산층과 다른 것이다.⁹⁾

또한 비트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중심으로 대두된 보헤미안적인 문학가, 예술가들의 그룹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현대의 산업사회로부터 이탈하여 원시적인 빈곤을 감수함으로써 개성을 해방하려고 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무정부주의적인 개인주의의 색채가 짙으며, 재즈, 술, 마약, 동양적인 선 등에 의한 도취에 의하여 지복(至福)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체제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극한적인 부정에 입각하여 새로운 정신세계를 체득하려고 하였다.¹⁰⁾

비트족은 반문화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히피의 원조가 된다. 1950년대에 정부의 탄압에 의해 사라지기 시작한 비트는 1960년대 중반에 등장한 사이키델릭 운동에 발맞춰 부활되었다. 비트는 히피의 태동과 함께 상당수가 그 속으로 편입되었지만 히피가 갖는 사회 참여적 성격을 사양하고 개인적인 비트의 순수성을 고집한 수절파도 있었다.¹¹⁾

3. 히피

1960년대 미국 학생의 반문화 운동과 베트남전 에 대한 학생들의 교내 폭동에서 근거한 히피 문화는 소비주의, 사업주의, 고도의 기술주의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회귀하는 움직임으로써, 기성사회와 기존의 법규 및 관습을 거부하고 몸치장, 생활 따위에 무관심하였으며 현대 문명의 이기와 물질 만능에 저항하여 인간성 회복에 노력하였다.

1967년경 황금기를 맞은 히피문화는 사회의 도덕적 물질적 가치와 미에 대한 전통적 개념 및 기준에 반기를 들고, 기존체제에 대해 저항하였으며

사이키델릭 문화등 그들만의 생활과 감정을 그대로 의복에 표현하였다. 그 결과 반항의 이미지를 가진 긴 머리와 청바지, 남녀가 동일한 헤어스타일과 의복스타일을 즐기는 유니섹스 모드 등이 등장하였으며 전통적인 성 고정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촉진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히피세대들이 기본 이념에서 벗어나 마약과 무질서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싹튼 약물 문화는 환각적인 록 음악과 사이키델릭 아트로 분출되었다.

저항 문화나 하위 문화의 복식은 많은 상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모문화의 복식을 변화시키기도 하며¹²⁾ 이들 문화는 일탈로 구분되기보다는 문화의 다양성, 복합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저항 패션으로서의 히피 복식은 서구 중심의 도시 산업 사회에 대한 저항으로 동양이나 제 3 세계의 민속 복식, 농부 작업복, 집시 의상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시간 공간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도시 공간에 맞지 않는 무대 의상이나 시골 농부복식 등을 착용했고 이념의 저항적 요소가 강하게 표현될 때에는 국기나 민속 복식까지 사용되기도 하였다.

히피의 동양 종교에 대한 동경은, 동방의 힌두교로브 등을 착용하게 하였고, 동방으로의 여행을 통해 쉽게 채택할 수 있게 하였다. 동방뿐만 아니라 제 3 세계에 대한 동경은 민속 풍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민속적 주제와 함께 수공예품에 대한 열망은 반(反) 물질, 탈(脫)도시의 사상을 상징했다. 히피 문화의 특징인 마약에 대한 관심은 직물에 표현되어 자극적 패턴과 사이키델릭 컬러의 매혹으로 이끌었는데, 브라이튼한 사이키델릭 컬러 의상이 유행되어 유니폼처럼 되었다.

히피들의 소수 민족에 대한 관심은 인디언 복식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슬과 프린지된 가죽 의류는 레드 인디언(Red indian)의 전통 의상에서 도입되었고 판초와 자수 블라우스, 스모크 등은 남미에서 들여왔다. 인디언 스타일을 비롯한 민속 풍은 인디언 테마인 모카신, 깃털 머리 장식, 프린지 술 등을 이용한 민속의상을 채택하게 하였다. 히피들이 얼굴에 꽃 그림을 그리는 것도 주제는 다

르지만 인디언 장식 스타일의 방법을 차용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인디언들의 흡연 의식을 히피들이 흉내내어 등글게 둘러 앉아 둘러가며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것이나, 인디언 테마를 복식에 사용하는 것은 인디언 마약에 대한 신비함, 소수 민족의 민속 풍에 대한 신비함과 인디언의 자연주의에 대한 신비함을 포함한다.

이렇듯 히피 세대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은 패션 면에서 에스닉, 사이키델릭한 색채와 프린트, 수공예적인 디테일, 록밴드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무대 의상, 유니섹스 모드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에스닉의 영향을 거치면서 그 내용이나 코디네이션 방식에서 풍부함이 더해진 레이어 록의 경향을 이끌어냈고 펑크 패션의 탄생에도 기여하였다. 거리 패션으로 등장했던 히피 스타일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집시룩, 로맨틱 룩으로 발전되어 1970년대의 유행을 리드하기도 하였다.

히피의 사상은 크게 저항, 일탈, 신비, 사랑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저항은 반전, 반핵, 사회 규범 저항, 고유한 개성 추구, 여권운동, 흑인 민권운동을 표현한 것이며, 히피끼리 의존해서 저항 운동을 하고, 소극적 저항으로 이상주의를 택한 것이다.

일탈은 현재로부터의 일탈로 시대에 맞지 않음과 물질로부터의 일탈로서는 가난을 선택하였고, 과학기계문명으로 부터의 일탈로서는 수작업, 도시로부터 일탈로서는 전원을 선택하고, 과거나 미래보다는 존재하는 '지금' 현재를 중시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격리, 분리됨을 경험적으로 표현하는 것등이다.

신비는 마약효과(환각세계), 인디언의 마약습관, 동방종교, 목상 등으로 지각에 이르렀고, 공동체적으로 도취하였으며, 저항 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며, 마약의 힘으로 주관적 세계에 이르게 된다.

사랑은 꽃, 개방된 성(性) 태도로 그룹내의 모든 멤버와의 관계를 가지므로 친밀함을 표현하였다.

간문자의 논문에서는 저항문화 이론에 의해 복식의 외적 형식을 분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¹³⁾

<표1> 60년대 저항문화의 사상

학자 사상	S.Hall	w.partridge	M.brake
저항	공동체의식 개인주의	의존	소극적인 저항 개인주의
일탈	가난 전원 존재하는 지금	격리 상황적	분리 표현적
신비	인디언 주제 신비함 지각에 이르는 분	공동체의 도취 일시적 이동성	이동성 주관적
사랑	사랑 플라워 파워	진밀함	소극적 저항

4. 여피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서 체제 사회를 거부한 히피에 대한 반동으로 80년대에 클로즈업 된 것이 여피이다.

1980년대의 보헤미안들은 주도 면밀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여피들은 그냥 무시하며 제 갈 길을 갔다. 잘사는 것이 최상의 복수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면서 반문화의 공격에 무심한 것처럼 보였다.¹⁴⁾ 여피는 영 어반 프로페셔널(young urban professional)머리글자로 「~한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어에 ie를 붙힌것으로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사는 영 엘리트들의 패션이나 라이프 스타일에는 공통점이 많은데 그 공통점에 속하는 그룹을 여피라 부른다.

여피는 그들이 하는 일에 열성적이며 보다 나은 생활과 지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말하자면 무엇이든 일류를 지향한다는 말이다. 의복이나 구두와 같은 장신구는 물론 액세서리까지도 일류 브랜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피지컬 엘리트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자연식을 좋아하며 단정한 차림의 비즈니스 슈트에 조깅 슈즈로 통근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미국내 우수 대학을 졸업한 건전한 사람이 여피가 되고 미국사회의 제 1선을 지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들에게서 프론티어 정신이나 석세스 스토리라는 언어가 상징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미국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¹⁵⁾

한편 어니 켈린스키는 그의 저서 「일하지 않는 즐거움」에서 여피족에 대하여 이렇게 평하고 있다. “80년대와 90년대초 여피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행복을 가장했고 1년 365일 흥청대며 살았다. 여피들은 열심히 일해 물질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풍요롭게 생활한다는 최신의 노동관을 만들어 냈다. 여피들은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은 생각만큼 근사하지 않다. 수많은 여피는 부에 휘감긴 정신세계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¹⁶⁾

대부분 베이비붐 시대에 출생한 여피들에게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욕망이 거셌다. 그래서 이들은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사무실에서 음악을 통해서라도 자연을 접해보겠다는 의도로 뉴 에이지 음악을 선호했다.¹⁷⁾

5. 보보스

1) 보보스의 어원과 개념

암울한 세기말을 거치면서 21세기 초반에는 부르조아(Bourgeois)와 보헤미안(Bohemian)의 합성어인 보보스족(Bobos)이 나타났으며 그들은 정보화 시대의 ‘개화된 엘리트’로서 60년대의 반문화주의와 80년대의 물질만능주의가 뒤엎힌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이 용어를 처음 쓴 미국의 언론인 데이비드 부룩스는 보보족을 “보헤미안 또는 히피족의 자유로운 정신 및 문화적 반역성과 80년대 여피의 세속적 야망을 함께 지닌 새로운 문화 및 기업의 권력자”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30~40대 청장년 층으로 주로 닷컴 기업의 백만장자나 경영 컨설턴트, 문화 사업의 종사자 등으로 연간 소득은 최하10만 달러 이상이다. 이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수도승과 같은 자기절제 속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즉, 고소득자 이면서도 스스로 창조자라고 여기고 세속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예술적 취향에 더 가치를 두며 풍요롭게 살면서도 과소비를 삼가는 사람으로 요약된다.

보보스족은 청바지에 헐렁한 콤비, 그리고 최첨

단 노트북을 든 사고가 자유로운 디지털 세대이다. 유행을 따르지 않고 일을 놀이처럼 한다.

이 보보스족은 개인주의자이지만 창의적이어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중심을 이룰 것이다.¹⁸⁾

2) 보보스의 출현과 사회적 배경

이러한 보보스족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미국문화가 한 세기를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부르주아와 보헤미안 사이의 긴장에 의해 전개되었고 초월 주의자와 악덕 자본가, 비트족과 회색 플란넬 양복 차림의 신사들, 히피족과 보수파의 대립으로 나타났으며 두 진영의 오랜 갈등에서 새로운 화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¹⁹⁾. 그 혼란의 정점에서 새로운 질서와 기득권 층이 정착되었는데 그들이 보보스족인 것이다. 그들은 60년대와 80년대 모두에서 배움을 얻었으며 부르주아 가치와 보헤미안 가치의 새로운 균형을 창출했다. 이 같은 균형으로 파괴와 격변의 수십 년 세월동안 잃었던 사회적 평화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워스프가 사회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에 교육받은 젊은 계층들은 다방면에 걸쳐 사회의 반란을 일으켰다.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 우두스탁 페스티벌²⁰⁾, 성의자유, 폭음 등 젊은이들은 물질적이고 조직적인 신교도 엘리트들의 부르주아 문명에 반기를 든 것이다. 그들은 기득권 층의 성격에서 되도록 먼 영적이며 자유분방하고 평등주의적이며 반 물질적인 것들을 찾아 헤맸다. 히피 문화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젊은 히피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엄청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보헤미안적인 가치관을 1980년대의 여피족의 부르조아 가치관과 멋지게 조화시켜 나갔다.

그러한 보보스에게 조직과 사회구조를 바라보는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있는데 그것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미국 대도시들의 성장과 소멸(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하며 당시 미국에서 유행 하였던 하이 모더니즘(high modernism)에 입각한

도시 계획의 철학을 비판했다. 즉 합리주의자들의 인간적인 동네를 없애고 단정하고 정돈된 주택 단지과 공원, 그리고 첨단 기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개발에 관하여 제인 제이콥스는 단조롭고 친편일률적이며 표준화된 것에 저항함으로써 보헤미안과 부르주아 계층 모두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중요한 점으로, 제이콥스는 낭만주의의 필수였던 이상주의와 극단주의를 배격하며 부르주아가 사랑하는 질서와 보헤미안이 사랑하는 해방을 조화시킨 것이다.²¹⁾

보보스가 선배 세대와 다른 점은 부르주아의 성공신화와 보헤미안의 저항정신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WASP²²⁾의 엘리트주의를 반대하면서 자란 보보스들은 풍요한 생활을 즐기면서도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한다. 기득권에 대한 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만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 층으로 성장해 버린 세대인 것이다.

3) 보보스 문화의 확산

이들 보보스들이 새로운 문화를 규정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보보스는 새로운 기득권층이 되었고 이들의 혼성 문화는 새로운 지위코드가 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보보스족은 절반은 히피이고 절반은 여피족이며 고급스러운 예술적 가치를 즐기며 동시에 물질적인 성공을 꿈꾸는 신세대들인 것이다.²³⁾

국내외의 C.F와 액세서리, fashion에 나타난 보보스의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C.F

먼저 금융, 통신 상품 광고에서 보보스족을 내세운 C.F가 큰 호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KTF C.F와 금융상품인 '플랜마스터' C.F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KTF의 새 C.F는 세련된 전문직 여성을 내세워 모던한 파티문화를 연출하며 '보보스족'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사진1>. 이 C.F는 서울 하얏트 호텔 야외 수영장을 배경으로 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으로 멋을 낸 전문직 종사자들의 파티 장면을 보여



<사진1> 보보스 족을 내세운 CF광고

주고 있다. 음악의 선율에 따라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귀걸이에 미묘한 떨림이 보이며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귀걸이라는 여자의 상징적 소품을 통해 여자에게만 울리는 벨소리를 미세하게 잡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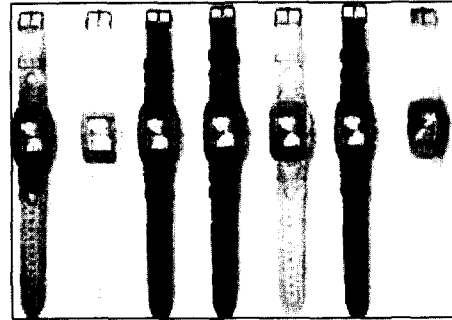
‘플랜 마스터’ CF는 치과 병원 의사를 ‘보보스 족’으로 내세웠다. 그는 실제로 병원일 외에 틈틈이 음악을 연주하고 공연도 가지는 재

즈 매니아로 CF에서는 무대 위에서 능숙하게 재즈를 연주하며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 있는 치의학 박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상품의 주요 타겟인 고소득 중산층의 입맛에 맞춰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었지만 자신만의 삶과 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²⁴⁾

(2) 약세사리

또한 최근 ‘보그’ ‘바자’등 패션 전문지를 보면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 모나코의 엘버트 왕자들이 자선파티에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에 고무밴드의 캐주얼한 디자인의 시계를 찬 모습 등이 소개된다. 그 시계가 보보스의 애용품인 테크노 마린이다. 슬쩍 보기엔 장난감 시계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그란 프레임 안에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박혀 있다. 이 시계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으면서도 고무밴드로 되어 있어 사치스럽지 않게 보이지 않는 데다가 전문 다이버용 무브먼트가 들어 있어 수심200m에서도 방수가 될 만큼 실용적이다. 당장에라도 잠수를 할 수 있는 방수시계,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파티 드레스와도 어색하지 않는 것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보보스의 취향에 맞아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세계적인 패션 액세서리 회사인



<사진2> 테크노 아가타 시계

아가타는 ‘테크노 아가타’라는<사진2> 이름의 시계를 내놓아 보보스족을 흥분시키고 있다. 이것은 저마다의 자유와 개성을 중요시하는 신세대 보보스족을 겨냥한 것으로 감각 패션을 연출하는 패션 제품으로 독특하고 대담한 디자인이 매력이다.²⁵⁾

(3) fashion

보보스 패션의 특징은 정형화된 스타일을 거부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으로 압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과시나 어필이 필요하지 않으며 타인의 판단도 거부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석이나 모피로 치장하거나 명품을 구입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들이 명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자신의 취향에 맞을 때 뿐이다. 즉 보보스족의 패션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스타일링이지 상표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사진3>.

최근 패션 가에는 ‘뉴서티(new thirty)’라는 신조어가 뜨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30대로 최근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40~60대의 소비세력이 줄어들면서 소비주체로 급부상한 이들을 겨냥한 신제품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e비즈니스맨’ 혹은 ‘보보스족’으로 불리는 30대 전후의 이들은 형식적인 옷차림보다는 창의적이고 일, 여가에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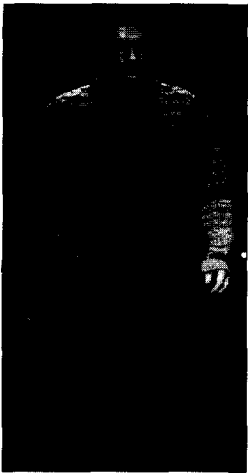


<사진3> 2001 F/W 구호

루 어울리는 옷차림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사진4>.²⁶⁾



<사진4> 국내에서의 보보스패션



<사진5> Raf SIMONS 01F/W

80년대의 여파가 고가 위주의 정형화된 패션을 추구했다면 보보스는 편안함과 고급스러운 소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유행을 좇기보다는 자기만의 개성과 소비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문화적인 지식을 접속한 소비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바지에 헐렁한 콤비라든지 때와 장소에 따라 캐주얼 하게 또는 비즈니스웨어로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옷을 좋아한다.

보보스족은 질감을 중요시한다. 매끄러운 합성 섬유보다는 무명의 까칠한 감촉을 더욱 좋아한다. 면으로 만들어 쉽게 구겨지는 셔츠, 털이 보풀보풀 살아난 양털 스웨터<사진5>, 수직으로 짠 조끼 등에 보보스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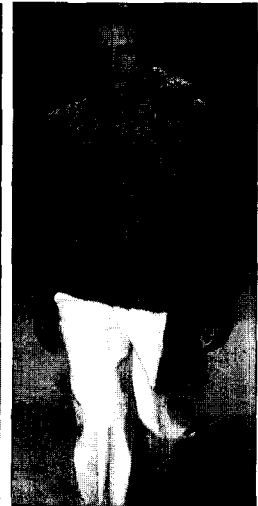
론 제멋에 겨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나 자선기부 등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이 21세기의 패션리더 보보스들의 덕목이다.

보보스들이 즐겨보는 카달로그(L'Officiel, Elle, Bazaar, Vogue)에는 트위드 재킷<사진6>을 소개하며 재킷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즉 트위드 옷감은 14세기 켈트족에서 유래된 것이며 6개월 된 양의 털을 깎아 짠 양모가 최고라는 것 등 마치 역사책이나 문학작품을 읽는 듯한 느낌의 설명을 곁들여야 한다.²⁷⁾

대부분의 보보스들은 패션에 있어서 여성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노출로 남성의 경우는 편안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품위와 자유로운 개성의 조화가 바로 보보스 스타일인 것이다<사진7>.



<사진6> YOHJI YAMAMOTO 01 F/W



<사진7> DRIES VANNOTEN 01F/W

자연 친화적이고 고전적이되 저급해 보이지 않는 취향의 복합성이다. 캐주얼하고 실용적이지만 소재의 고급성으로 차별화한다.²⁸⁾ 과감한 캐주얼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III. 컬렉션에 나타난 보보스 패션

1. 보헤미안 럭셔리

01/02 F/W 컬렉션에서는 문화 패전의 핵심코드인 보보스가 디자이너들의 표적이 되었다. 보헤미안 스타일은 과거에 대한 향수,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신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여성스럽고 럭셔리하게 해석되었다. 천연소재와 부드러운 소재의 특성을 이용하여 신체에 따라 흐르는 슬립엔 롱 실루엣과 드레이프성이 지배적이며<사진8> 동부의 유티피안 민속풍과 인디안의 전통적인 것<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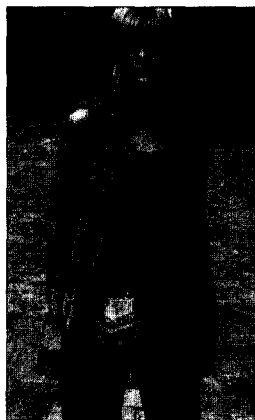
진10>, 그리고 일본풍의 에스닉룩이 혼합되어 표현되었다. 자수와 패치워크, 술장식이 디테일로 많이 혼용되며 약세서리는 술 달린 배낭과 민속적인 부츠로 코디가 되었으며<사진9> 얇은 소재와 느슨한 튜너, 프린지 달린 넓은 벨트로 완벽한 보헤미안의 낭만적인 스타일로 보보스패션을 표현하였다<사진11>.



<사진8> Donna Karan
Vogue6



<사진9> kenzo 0102f/w



<사진10> Donna Karan
Vogue6



<사진11>]2002S/S Byb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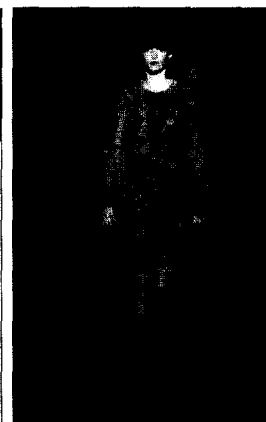
2. 로맨틱히피

지나친 이성주의보다는 감성주의를 지향하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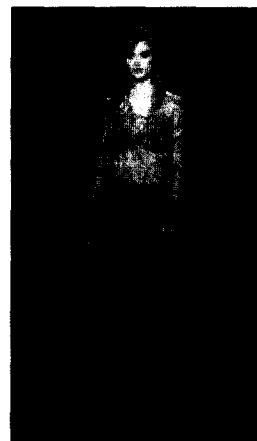
보스는 노스탈직하고 로맨틱한 히피로 01/02 FW 컬렉션에서 새롭게 탄생되었다. 순수한 동심의 플로랄 프린트라든지<사진13> 페이스리 프린트의 히피 패턴물<사진14>과 70 80년대의 헤어스타일, 워싱턴 듯한 느낌의 소재, 데님<사진12> 등 초원을 연상시키는 스타일을 제시하였으며 절제되어진 culture mix와 퓨전 에스닉으로 변모하여 보헤미안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스타일을 제안하였다<사진15>. 한편 안나 수이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팝아트의 영향과 카나비 스트리트, 새로운 히피의 믹스를 결합시켰다. 보다 부드러워지고 순수한 여성스러움을 갖춘 보보스들이 다가오고 있다.²⁹⁾³⁰⁾



<사진12> Celine 0102f/w



<사진13> Anna Sui 0102F/W



<사진14> Anna Sui
0102F/W



<사진15> 2002 S/S
Emanuel Unga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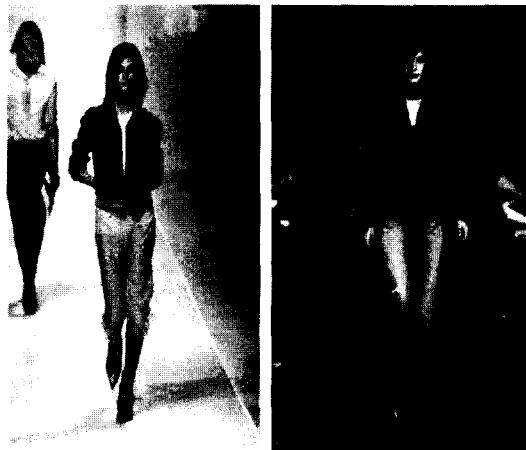
3. 빈티지 럭셔리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보보스족은 내년 패션 경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상류층과는 상이한 성격을 띠는 보보스 패션은 정형화된 스타일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개성과 소비 감각을 가지고 실용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소재의 고급화와 단품개념의 코디 착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이마루 티셔츠와 청자켓 그리고 실크 스커트의 착장에서 보여지듯이 활동성을 강조하고<사진 16> 대중화된 소재인 데님의 스포티브함과 실크 소재의 매치로 럭셔리함을 보여준다<사진 17>. 한편 이번 시즌 Blumarine은 60년대 말 자유를 표방하던 히피패션을 꽃문양 쉬폰 소재와 광택 있는 실크 소재를 mix하고 에스닉한 부츠로 코디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재조명하였다<사진 19>.

실용주의와 개성주의를 표방하는 보보스족은 에스프레소를 길거리에서 즐겨 마시며 고급승용차 대신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장의 모습, 평범한 착장에 모피를 입는 이중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사진 18>. 실리를 택하는 보보스의 양면성이 전체적인 패션 동향과도 맞물려 다가오는 02 F/W패션 트렌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진 16> Celine 0102 F/W <사진 17> Mac Jacobe 01 02 F/W



<사진 19> 2002S/S Blumarine <사진 18> Celine 01/02 F/W

IV. 보보스 패션의 내적 의미와 외적 형태

1. 내적 의미

보보스 패션의 내적 의미는 문화와 가치관, 취향, 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저항패션은 보헤미안의 문화만을 수용하지만 보보스 패션은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혼성문화를 수용한다.

또한 가치관 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항패션은 소극적인 저항과 이완적 행동, 이탈, 불균형과 자유분방함의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반해 보보스 패션은 도전과 절충, 균형과 자기절제의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지해야 할 것은 보보스 패션과 저항패션은 서로 공통되는 내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등의식과 개인주의, 순수함으로 표현된다.

취향은 보보스 패션은 예술적이며 럭셔리한 취향을 나타내며 저항 패션은 퇴폐적인 취향으로 나타난다.

영적인 측면을 관찰하면 보보스와 저항패션 모두 동방의 종교와 묵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행을 동경하는 것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보스는 자아절제로 주관적 세계에 이르고 저항

패션은 마약의 힘으로 주관적인 세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 할 수 있겠다.

<표2> 보보스 패션과 저항 패션의 내적 의미 비교분석

	보보스 패션	저항 패션
문화	혼성 문화 지식 중심 네트워크 사회 사회적 융합	저항문화 동력중심 계층적인 사회 사회적 저항
가치관	평등의식 개인주의 순수함 경제력 자신감 도전적 절충 균형 자기절제	평등의식 개인주의 순수함 가난함 소극적 저항 이완적 일탈 불균형 자유분방
취향	예술적 취향	퇴폐적 취향
영적인 측면	동방 종교 묵상 자기절제로 주관적 세계에 이룸	동방종교 묵상 마약의 힘으로 주관적 세계에 이룸.

2. 외적형태

저항 패션의 외적형태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긴 머리, 종교지도자의 복식을 모방한 스타일과 군복 스타일로 보헤미안 문화를 표현하였지만 보보스 패션은 헐렁한 콤비, 청바지, 트위드 재킷등 이지한 스타일로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혼성 문화를 표현하였다.

또한 저항 패션은 그린지룩, 전원풍의 패전트룩, 민속풍의 에스닉룩 등으로 저항과 일탈적 사상의 특성을 내포하였으나 보보스 패션은 일본풍의 에스닉과 프레피룩 수공예장식등으로 표현되어 자연 친화적이며 고전적이며 저급해 보이지 않는 절충과 균형의 내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저항과 일탈적 사상의 상징적 의미는 약화되어 패션 경향으로 조형적 표현으로서만 제시되었다.

패션스타일에 있어서의 저항 패션은 여성의 가슴노출과 남성복의 여성적 취향으로 개방화되고

혼성된 개념의 성을 보여주었던 저항 패션과 달리 보보스 패션은 남녀가 구분되는, 여성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노출로 남성은 편안한 캐주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보보스 패션과 저항 패션의 외적 형태를 정리하여 <표3>으로 정리하였다.

<표3> 보보스 패션과 저항 패션의 외적 형태 분석

	보보스 패션	저항 패션
이념	객관적 캐주얼스타일(자신감) 이지스타일(편안함, 이성적) 융합,	주관적 레이어드 룩(소극적 표현), 긴 머리(자아중심) 저항, 일탈
	빈티지 럭셔리 스타일의 혼합 일본풍의 에스닉	그린지룩(가난함),전원 풍(전원동경, 에콜러지), 인디언풍, 인도풍(제3세계동경)
관념	고정 관념	고정 관념 타파
패션 스타일	여성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노출. 남성은 편안한 캐주얼로	여성의 가슴노출 유니섹스 웨어 남성복의 여성 취향

V. 결 론

21세기는 동력중심 사회에서 지식중심 사회로 직선적인 사회에서 탈 직선적인 사회로, 계층적인 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기득권 층을 확보하고 있는 '개화된 엘리트'가 보보스 이다.

최근 문화패턴의 핵심코드로 떠오른 보보스를 고찰하기 위해 저항문화로 1950년대 비트와 1960년대 히피족을 고찰하였으며 상위 문화로 1980년대 여피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 결과 보보스의 출현은 비트족과 희색 프란넬 양복 차림의 신사들, 히피족과 보수파의 오랜 갈등에서 새로운 화합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히피족의 자유로운 정신과 80년대 여피의 세속적 야망을 함께 지닌 보보스의 혼성 문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C.F광고, 액세서리, fashion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01/02 F/W 컬렉션에서는 보보스가 디자인

너들의 표적이 되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 보헤미안 럭셔리와 로맨틱 히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순수한 동심의 프로탈 프린트, 페이지리 프린트의 히피 패턴과 80년대 헤어스타일, 워싱턴 듯한 느낌의 소재 데님, 초원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저항패션은 2000년대로 도입되면서 그 상징성은 점점 퇴색되어가고 하나의 스타일로 존재하게 되었다.

위의 고찰을 토대로 보보스 패션과 저항 패션의 내적 의미와 외적 형태를 끌어내어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의미에서 공통되는 점은 평등주의 개인주의, 순수함을 들 수 있었으며 그러한 내적 사상은 저항패션에서는 그런지룩, 전원풍으로 나타났고 보보스 패션에서는 빈티지 럭셔리한 style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치관 측면에서 볼 때 저항 패션은 소극적인 저항과 이완적 행동, 일탈, 불균형과 자유분방함의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반해 보보스 패션은 자신감과 도전, 절충, 균형과 자기절제의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한 내적 의미는 저항패션에서는 레이어드 룩, 긴 머리, 수공예품의 지향, 인디언 풍의 에스닉으로 표현되며 보보스 패션에서는 빈티지 스타일, 이지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 일본풍의 에스닉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성에 관한 가치부분에서는 저항패션은 여성의 가슴 노출과 유니섹스 웨어, 남성복의 여성 취향으로 고정관념을 타파하였으나 보보스 패션에서는 여성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노출로 남성은 이지 캐주얼로 자연 친화적이고 고전적인 취향으로 고정관념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저항 패션의 표본을 히피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문헌 연구로만 고찰하였고 보보스는 아직 국내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으므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에서는 저항패션이 보보스 패션에 미친 영향을 규명함에 있어서 실증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간문자, "1960년대 저항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한국복식학회지30호, 1996, p.2.
- 2) 데이비드 브룩스 「디지털 시대의 보보스」(서울: 동방미디어), 2001, p.84.
- 3) <http://www.w21.net/h-channel/ch-beauty/be-trend/trend-04.htm>
- 4) 김민자, "2차 대전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의류학회지」, vol.11, No.2, 1987, p.75.
- 5) 김선희, 안현숙, 이해영공저 「21세기 패션정보」(서울: 일지사), 2001, p.78.
- 6) 「세계 대백과 사전」(서울: 학원출판사공사, 1993), p.547.
- 7) 간문자,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 p.1.
- 8) 간문자, op. cit., p.11.
- 9) 데이비드 브룩스, 「디지털 시대의 보보스」, (서울: 동방미디어), 2001, p.84.
- 10)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11) <http://my.koreamusic.net/~rodywl/music/topalbum/velvet.html> 2001-08-27.
- 12) 김윤희, "20세기 서양 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p.9.
- 13) 간문자, op. cit., p.153.
- 14) 데이비드 브룩스, op. cit., p.84.
- 15) 김종복, 「fashion ward collection」(서울: 도서출판시대), 1998, p.26.
- 16) <http://my.netian.com/godbless/special/npmoney7.htm>, 2001-08-15
- 17) <http://my.netian.com/~dong9524/newage.html> 2001-08-15
- 18) www.hankyung.com/media/theme/weekend/01.../shopping-1/htm 2001-08-15
- 19) 데이비드 브룩스, op. cit., p.67.
- 20) 미국의 우두스탁 근교에서 열린 대규모 록페스티벌로 기성세대에 반기를 든 젊은이들50만명이 조화, 평화, 사랑을 외치며 록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그곳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3일간의 우두스탁 페스티벌을 '우두스탁 베이션'이라고 명명했다.
- 21) 데이비드 브룩스, op. cit., p.132.
- 22) White Anglo-Saxon Pretestant의 약자로 백인으로서 앵글로 색슨계의 신교도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은 원래 19세기 후반 이후의 이민자들이나 유색인종에 대해 영국계의 문화적 우위를 과시하는 뜻으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배타적이고 비창조적인 미국인을 경

멸하는 뜻으로 쓰인다. 영국계 미국인의 자손인 이들은 전통적인 미국인으로 오늘날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계와 재계의 지도급 인사는 대개 워스프이다.

- 23) <http://news.simmani.com/culture/dongailbo/20010.../183446-0335htm> 2001--815
- 24) <http://www.hankooki.com/woman/200109/재2001091051311h0000.htm> 2001-08-26
- 25) <http://kr.dailynews.yahoo.com/headlines/so/200.../2001080990972.htm> 2001.08-15
- 26) <http://woman.hankooki.com/woman/fashion/200102/wo20010228152506h40044.htm> 2002-0205
- 27) <http://www.w21.net/h-channel/ch-beauty/be-trend/trend-o4.htm>
- 28) BAZAAR KOREA 2001. 6.
- 29) 박성희 「2001 F/W 유행정보」2001.7 서울패션 디자인 센터.
- 30) fashion focus 2001. 9.